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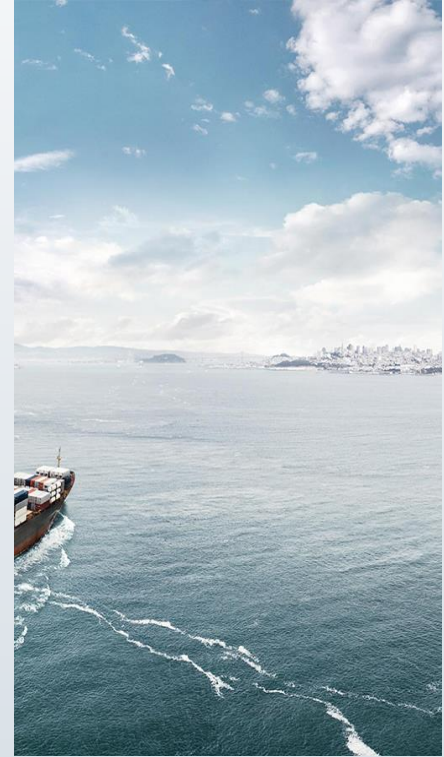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446

April 04, 2023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4
Tankers	8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3
Key Indicators	15
Issue & Trend	17
Contact Details	18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NEWS

1. OPEC+ 감산 '깜짝 발표'...'국제유가 100 달러' 전망도 급부상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 (OPEC+)가 다음달부터 추가 감산에 돌입한다. 최근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 의존도를 줄여 가려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도 잇따라 감산 조치를 내놓은 것은 사실상 사우디가 러시아의 편에 섰다는 해석이다.

2 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5 월부터 하루 50 만 배럴(BPD) 또는 전체 생산량의 5% 미만의 자발적 감산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을 위해 예방적으로 단행됐다"며 "(감산 기초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말형' 격인 사우디의 선언에 아랍에미리트(UAE)도 14 만 4000BPD 를 줄인다고 발표했다. 이라크(21 만 1000BPD)와 쿠웨이트(12 만 8000 BPD), 오만(4 만 BPD), 카자흐스탄(7 만 8000BPD), 알제리(4 만 8000BPD)도 동참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독자적으로 시작한 50 만 BPD 감산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설비 부족 등으로 원유 생산 할당치를 채우지 못하던 회원국들은 이번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날 발표된 감산량을 더하면 전 세계 수요의 최대 3.7% 규모다. 지난해 10 월 OPEC+ 회의에서 결정된 200 만 BPD 감산 정책과 별도로 시행되는 조치다. 지난달 국제 유가는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배럴당 70 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2021 년 12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유가를 최소 80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간 미국은 "OPEC+가 감산 방침을 고수하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안 그래도 어려운 세계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제한하려는 속내도 담겨 있었다. 지난해 7 월 바이든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를 직접 찾아가 증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OPEC+는 같은 해 10 월 '대규모 감산'으로 화답해 워싱턴 조야를 분노케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추가 감산 조치가 미국과 사우디 간 새로운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RBC 캐피털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는 "사우디가 '이제 세계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발신했다"고 분석했다.

I . NEWS

2.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시정방안 협의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관련해 함정 시장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3 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합으로 함정 부문 ‘붕쇄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당사회사(한화) 측에 지난달 말 시정 방안 협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 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합병 승인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의 수직결합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경쟁사 의견 조회 과정 등을 거쳐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균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쟁사와의 입찰에서 붕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쟁 입찰 과정에서 고려되는 기술평가 등에서 계열회사에 차별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관 의견이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아니며, 현시점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상대방 측에 의견을 묻는 절차”라며 “최종 결론은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 사무처가 한화에 시정 방안 협의를 개시하면서 심사 결과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 당국은 당초 예상(4 월 18 일)보다 앞선 지난달 31 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EU 까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해외 7 개 경쟁 당국 모두 양사의 결합이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앞서 2 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것을 비롯해 일본과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도 모두 승인했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 남게 됐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 일 이내지만 12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번 시정 방안 협의 등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한화는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I . NEWS

3. 선원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추진

선원들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현재 최대 월 급여 300 만원에서 497 만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선원 급여에 대한 비과세 대상 소득을 선원 최저임금의 2 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 월 3 일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선원은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해 최근 승선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선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선원의 실질소득은 증가시킬 수 있도록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원 소득세 비과세는 외항상선원, 원양어선원, 해외취업선원의 경우는 월 300 만원 이내, 내항상선원은 월 20 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연근해 어선원은 연간 240 만원 이내의 생산수당에 한해서 차별적으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의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들에 대해 선원 최저 임금의 2 배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올해 월 248 만 7640 원이므로 2 배인 월 497 만 5280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이수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원노련은 성명서를 통해 "선원들은 사회·가정과 격리되어 거친 바다현장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늘 사회적 관심과 지원, 보상에서 제외돼 왔다. 선원들의 희생과 고된 노동을 보상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고 선원직 매력화와 이를 토대로 한 해운·수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원노련은 선원 소득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이수진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원노련은 "지난 3 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강도 높은 고립과 노동으로 공급망을 지켜낸 선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국회가 조속히 답변해주기를 바란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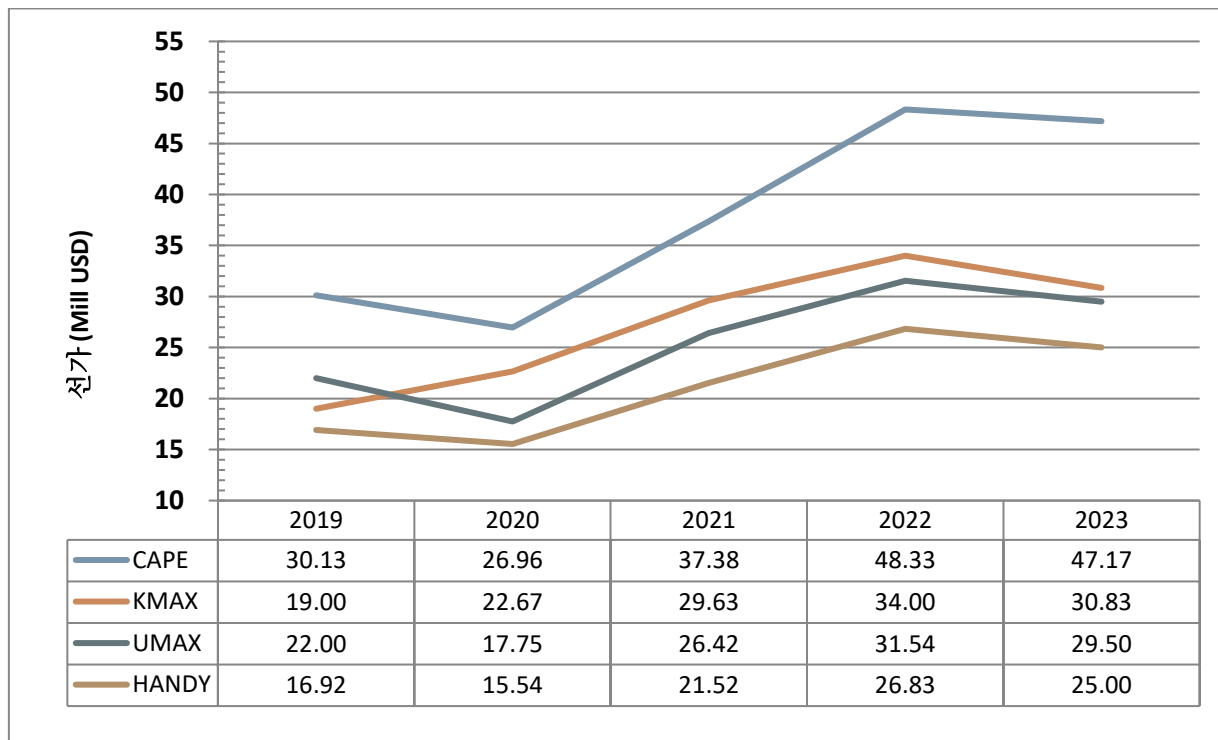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9	2020	2021	2022	2023
Capesize 180K <small>*Eco-design based since 2021</small>	30.13	26.96	37.38	48.33	47.17
	-14.34%	-10.51%	38.64%	--	-2.41%
Kamsarmax 82K <small>*76k before 2020</small>	19.00	22.67	29.63	34.00	30.83
	0.42%	19.30%	30.70%	14.75%	-9.31%
Ultramax 60-61K	22.00	17.75	26.42	31.54	29.50
	--	-19.32%	48.83%	19.40%	-6.47%
SMAX 58K <small>*Data available before 2021</small>	17.17	15.92	--	--	--
	-4.20%	-7.28%	--	--	--
Handysize 37K	16.92	15.54	21.52	26.83	25.00
	12.18%	-8.13%	38.47%	24.69%	-6.83%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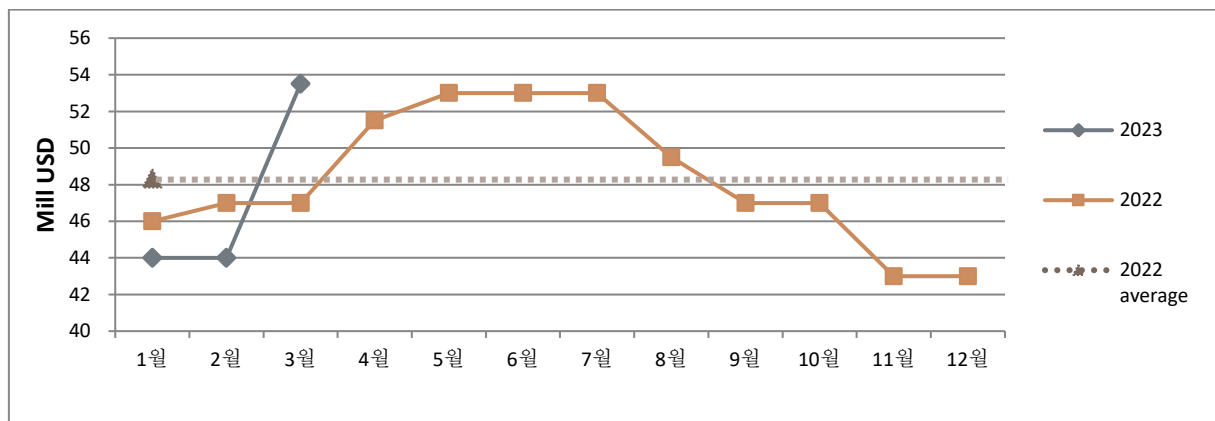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CAPE (180K, Eco.)	선가	44.00	44.00	53.50				47.17
	전월대비	2.3%	0.0%	21.6%				--
	전년대비	-4.3%	-6.4%	13.8%				-2.4%
KMAX (82K)	선가	30.00	30.00	32.50				30.83
	전월대비	0.0%	0.0%	8.3%				--
	전년대비	-11.8%	-13.0%	-8.5%				-9.3%
UMAX (60-61K)	선가	28.50	28.50	31.50				29.50
	전월대비	1.8%	0.0%	10.5%				--
	전년대비	-6.6%	-12.3%	-4.5%				-6.5%
HANDY (37K)	선가	24.50	24.50	26.00				25.00
	전월대비	4.3%	0.0%	6.1%				--
	전년대비	-10.9%	-12.5%	-7.1%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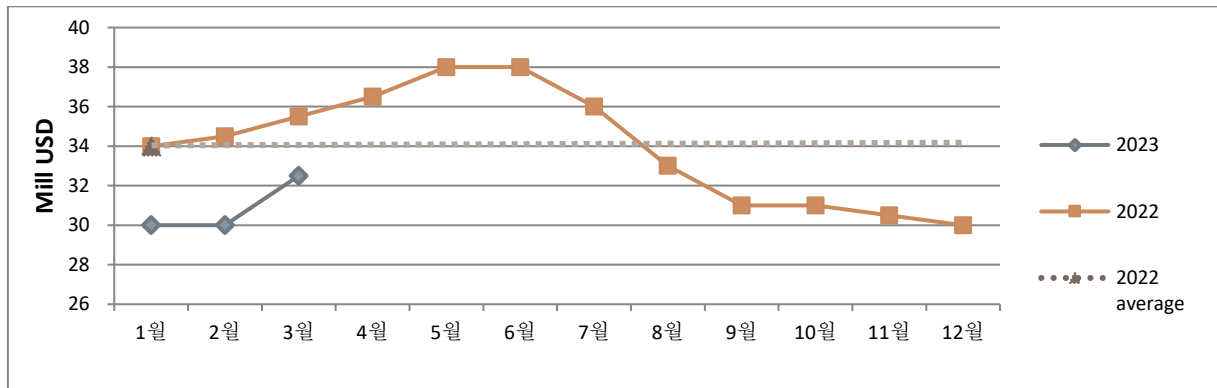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CAPE (180K, Eco.)	46.00	47.00	47.00	51.50	53.00	53.00	48.33
KMAX (82K)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4.00
SMAX (58K)	30.50	32.50	33.00	34.00	34.00	34.50	31.54
HANDY (37K)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6.83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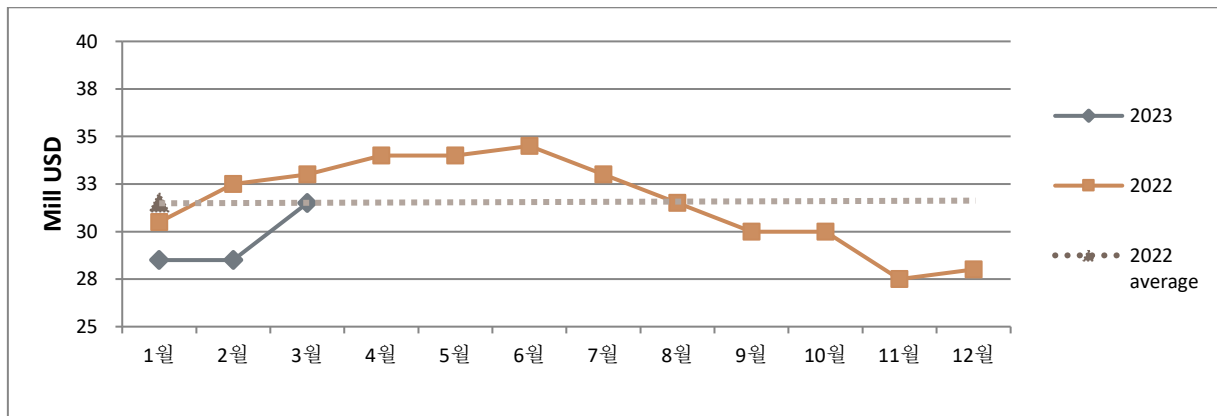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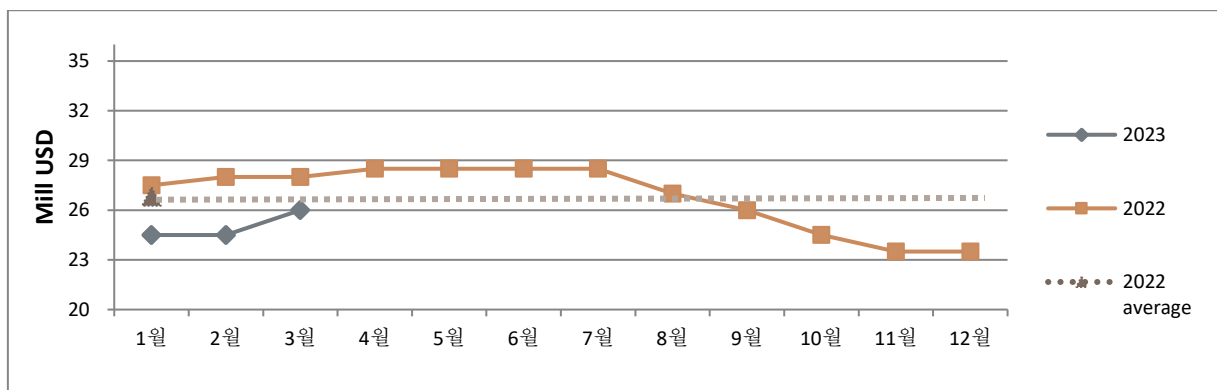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STAR BOREALIS	179,678	2011	PHILIPPINES (KOR)	B&W		32.5	Denmark Buyer (Norden)
BC	STAR POLARIS	179,600	2011	PHILIPPINES (KOR)	B&W		32.2	
BC	ROSEBANK	177,028	2010	CHINA	B&W		23.25	Middle Eastern buyer
BC	BULK JAPAN	82,951	2006	JAPAN	B&W		15.3	Undisclosed buyer
BC	LUCK FORTUNE	76,662	2002	JAPAN	B&W		9.8	Undisclosed buyer
BC	ATLANTIC MONTERREY	63,590	2017	JAPAN	B&W	C 4x30.7t	30	Undisclosed buyer
BC	AMIS LEADER	58,700	2010	CHINA(JPN)	B&W	C 4x30t	18	Undisclosed buyer
BC	HAUT BRION	57,000	2011	CHINA	B&W	C 4x30t	14.3	Undisclosed buyer
BC	GLOVIS MAINE	56,686	2013	CHINA	B&W	C 4x35t	15.8	Undisclosed buyer, tier II
BC	SUPER ODEGAARD	55,628	2011	JAPAN	B&W	C 4x30t	18.5	Greek buyer
BC	GEAT WISDOM	45,659	2000	PHILIPPINES (JAP)	B&W	C 4x30t	7	Undisclosed buyer
BC	NORDIC DARWIN	37,300	2016	CHINA	WART	C 4x30t	21.3	Greek buyer (Pioneer)
BC	ELDORIS	36,045	2011	KOREA	B&W	C 4x30t	16.4	Undisclosed buyer
BC	KALIXENOS	35,925	2010	CHINA(KOR)	B&W	C 4x35t	10.9	Undisclosed buyer
BC	JIA TAI HE	35,045	2012	CHINA	B&W	C 4x30t	12.75	Turkish buyer
BC	TAIZHOU PIONEER	32,500	2011	CHINA	B&W	C 4x30t	11.8	Greek buyer
BC	EN OCEAN	27,865	1997	JAPAN	MITSU	C 4x30.5t	4.5	Undisclosed buyer
BC	MP ATLANTIC	22,035	1994	JAPAN	MITSU	C 4x30t	3.5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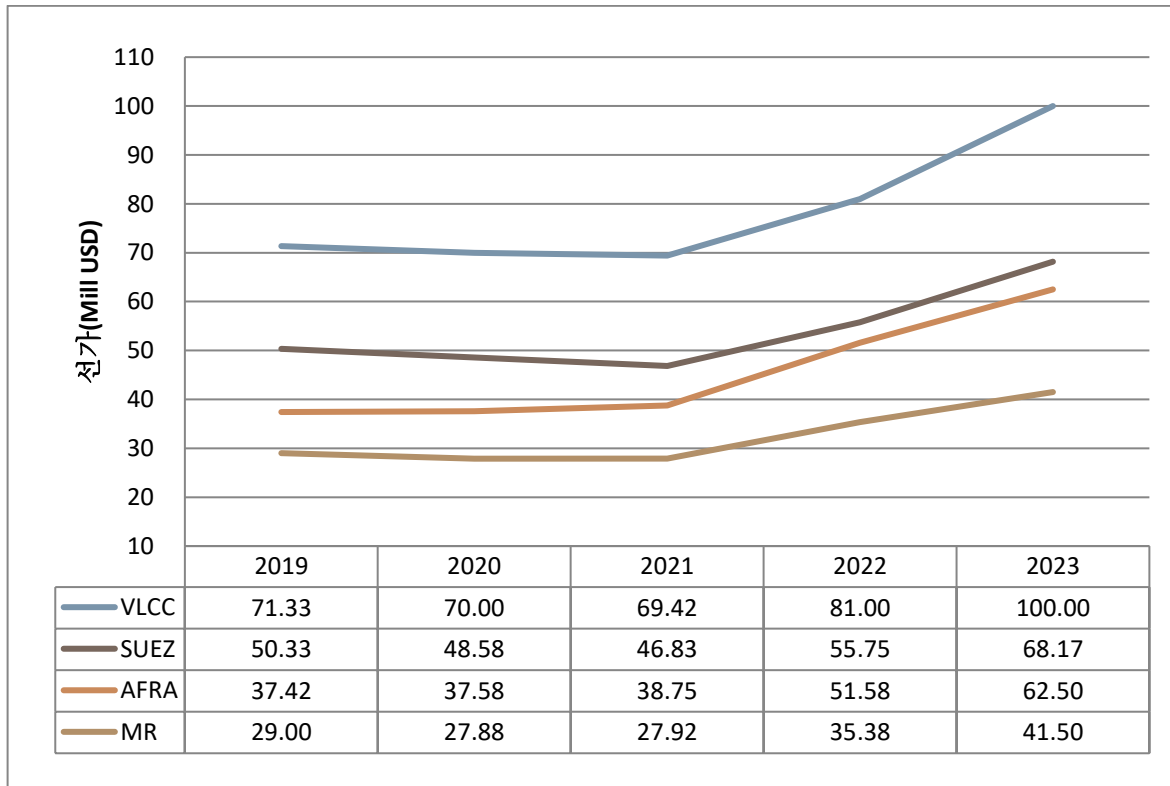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VLCC (310K)	71.33	70.00	69.42	81.00	100.00
	10.73%	-1.87%	-.83%	16.69%	23.46%
Suezmax (160K)	50.33	48.58	46.83	55.75	68.17
	15.60%	-3.48%	-3.60%	19.04%	22.27%
Aframax (105K)	37.42	37.58	38.75	51.58	62.50
	17.85%	.45%	3.10%	33.12%	21.16%
MR (51K) <small>*Based on 49K till 2018</small>	29.00	27.88	27.92	35.38	41.50
	9.43%	-3.88%	.15%	26.72%	17.31%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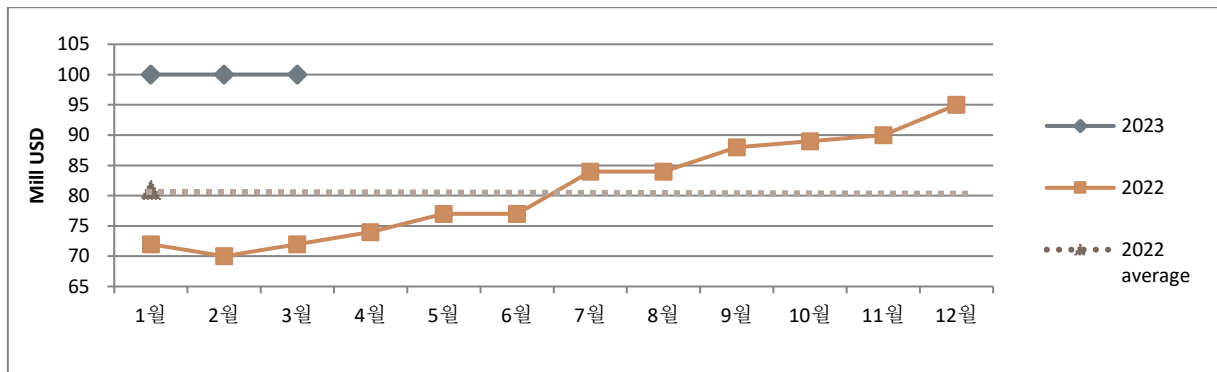




III. TANKER

20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VLCC 310K	선가	100.00	100.00	100.00				100.00
	전월대비	5.3%	0.0%	0.0%				-
	전년대비	38.9%	42.9%	38.9%				23.5%
SUEZ 160K	선가	68.00	68.00	68.50				68.17
	전월대비	4.6%	0.0%	0.7%				-
	전년대비	41.7%	44.7%	39.8%				22.3%
AFRA 105K	선가	62.50	62.50	62.50				62.50
	전월대비	4.2%	0.0%	0.0%				-
	전년대비	38.9%	38.9%	38.9%				21.2%
MR 51K	선가	41.50	41.50	41.50				41.50
	전월대비	3.8%	0.0%	0.0%				-
	전년대비	38.3%	38.3%	43.1%				17.3%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year 평균
VLCC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1.00
SUEZ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5.75
AFRA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1.58
MR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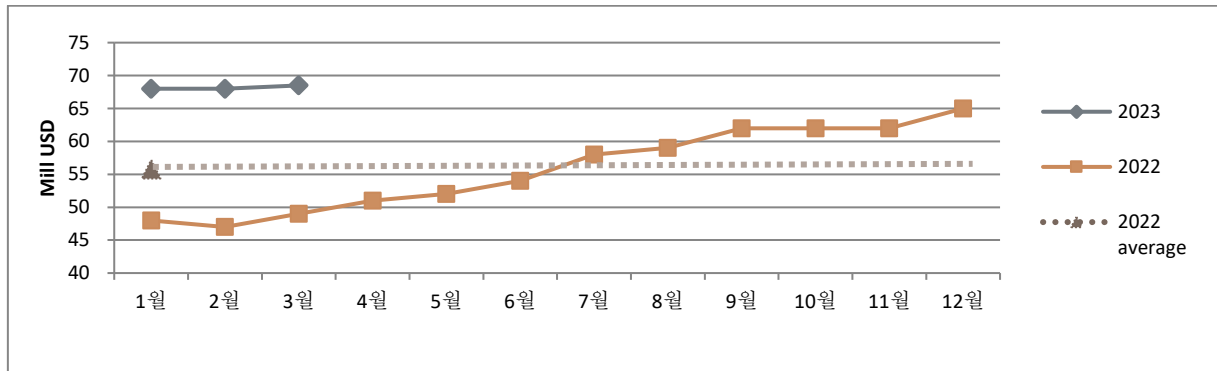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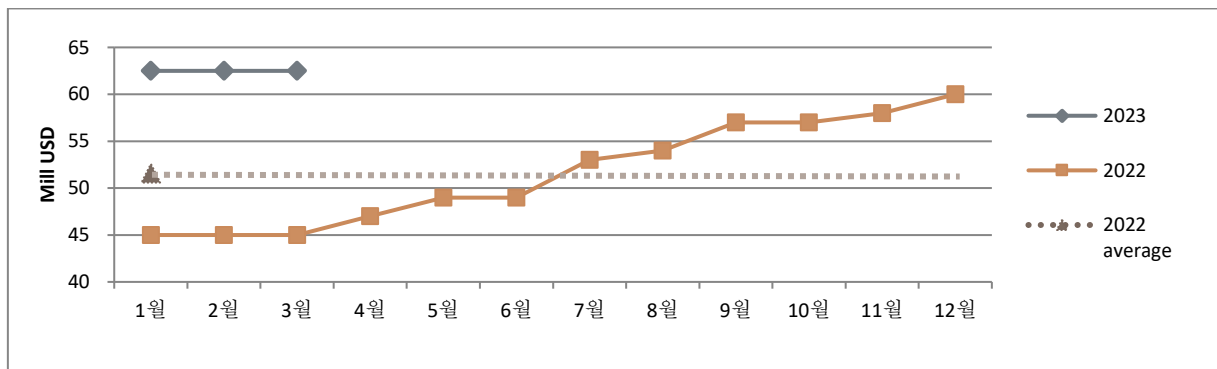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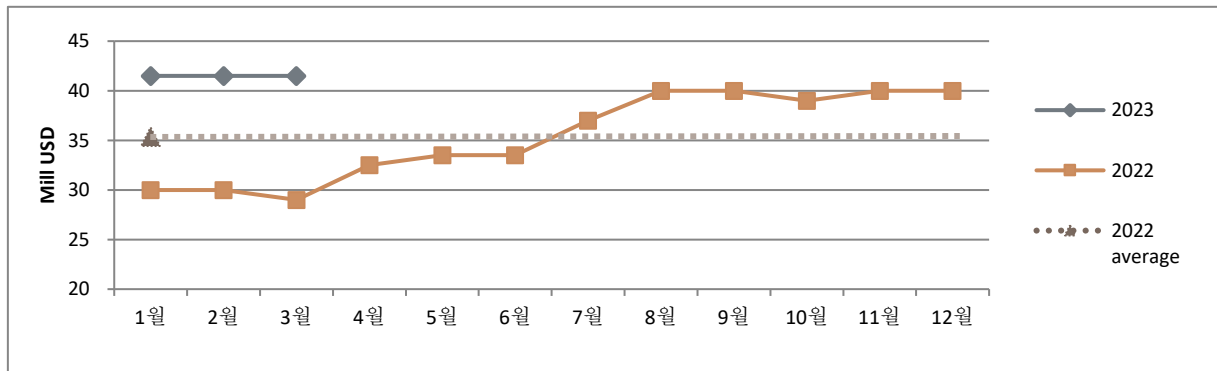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NECTAR SEA	105,370	2008	JAPAN	B&W		37	Undisclosed buyer, scrubber fitted
TANKER	NORDIC GENEVA	73,634	2009	CHINA	B&W		23.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DPP
TANKER	DHONOUSSA	69,523	2005	ROMANIA (KOR)	B&W		--	Turkish buyer (Beks Shipping)
OIL/CHEM	DORIC PIONEER	54,565	2013	KOREA	B&W	3	34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GRACE LUCRUM	51,371	2006	KOREA	B&W	3	22.8	Undisclosed buyer, ice class 1B, epoxy coated
OIL/CHEM	ELANDRA CORALLO	50,695	2008	KOREA	B&W		24	Norwegian Buyer (Viken), epoxy coated
OIL/CHEM	ELANDRA BLU	50,695	2008	KOREA	B&W	3	24	
OIL/CHEM	PS MILANO	49,999	2018	KOREA	B&W		--	Italian buyer (Premuda), epoxy coated
OIL/CHEM	WISBY PACIFIC	49,650	2017	CHINA	B&W	2	43.3	Undisclosed buyer, eco-engine, stst
OIL/CHEM	WISBY ATLANTIC	49,650	2017	CHINA	B&W	2	43.3	
OIL/CHEM	DOLUNAY	47,800	2007	KOREA	B&W		--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CELSIUS RAVENNA	47,366	2010	JAPAN	B&W		26	Undisclosed buyer
OIL/CHEM	SANMAR SONGBIRD	47,094	2003	JAPAN	B&W		15.8	UAE buyer, epoxy coated
OIL/CHEM	CELSIUS RANDERS	46,046	2010	KOREA	B&W		26.5	UAE buyer
OIL/CHEM	RIDGEBURY JOHN B	45,975	2007	JAPAN	B&W		23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NORIENT SATURN	40,435	2007	ROMANIA	B&W		19.7	UK buyer (Sea Transport), epoxy coated
OIL/CHEM	VOGE DIGNITY	38,341	2009	CHINA	B&W	3	19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VOGE TRUST	38,341	2009	CHINA	B&W	3	19	
OIL/CHEM	NORVIKEN	37,874	2010	KOREA	B&W	3	24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NAFTILOS AN	37,379	2003	KOREA	B&W		15	Turkish buyer, epoxy coated
OIL/CHEM	ROSY	20,635	2008	CHINA	B&W	2	12.75	Undisclosed buyer, epoxy coated
OIL/CHEM	MERSEY FISHER	4,765	1998	UK	RUSTON		3.1	Undisclosed buyer



III. TANKER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AMOLIANI	80,163	2013	KOREA	WART	6881	TEU	61	French buyer (CMA CGM), eco-engine
CONT	LOUISA SCHULTE	23,400	2008	CHINA	B&W	1740	TEU	11.5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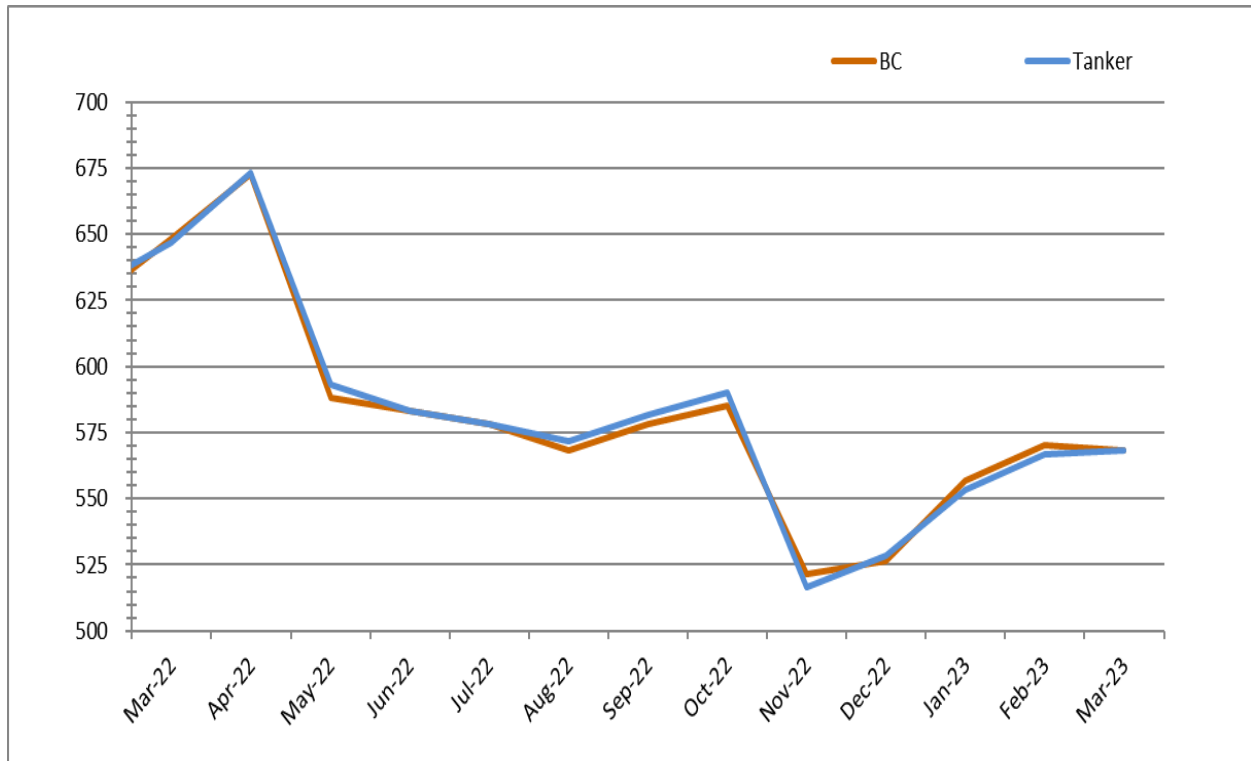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해체선가

	2021 Average		2022 Average		2023 Average		2022 March	2023 March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526.81	52.9%	590.28	12.0%	562.78	-4.7%	646.67	568.33	0.3%	-12.1%
BC	529.17	53.6%	588.56	70.8%	565.00	-4.0%	648.33	568.33	-0.3%	-12.3%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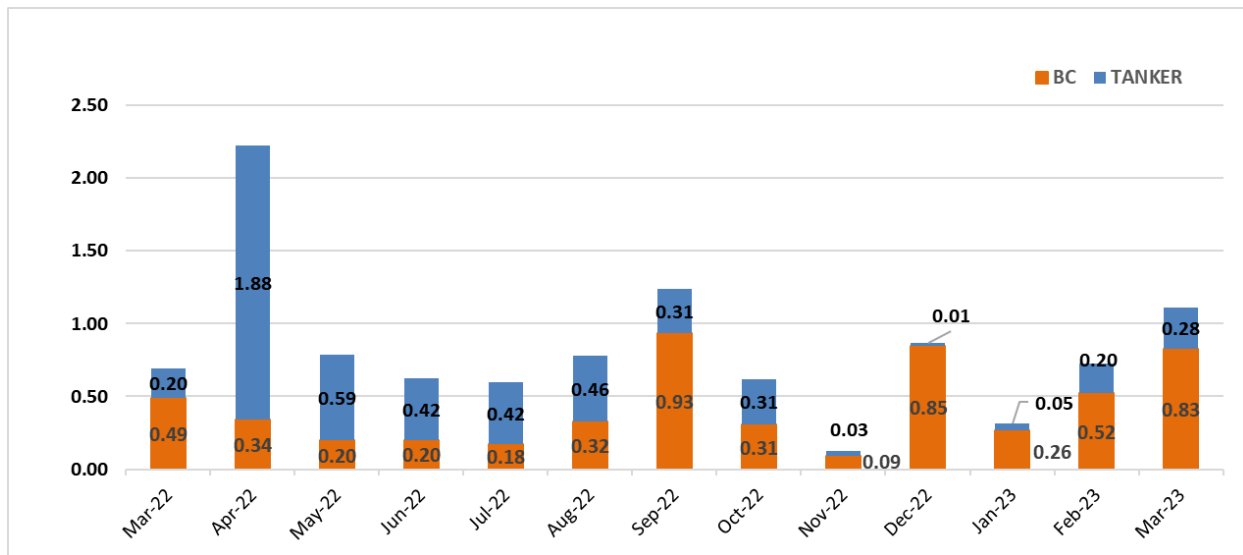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1		2022		2022 March		2023 March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YoY	No. of Vessel	YoY
TANKER	15.66	315	6.50	134	0.20	5	0.28	38.1%	7	40.0%
*BC	6.34	123	4.48	63	0.49	6	0.83	68.8%	10	66.7%

*BC incl. General cargo vessel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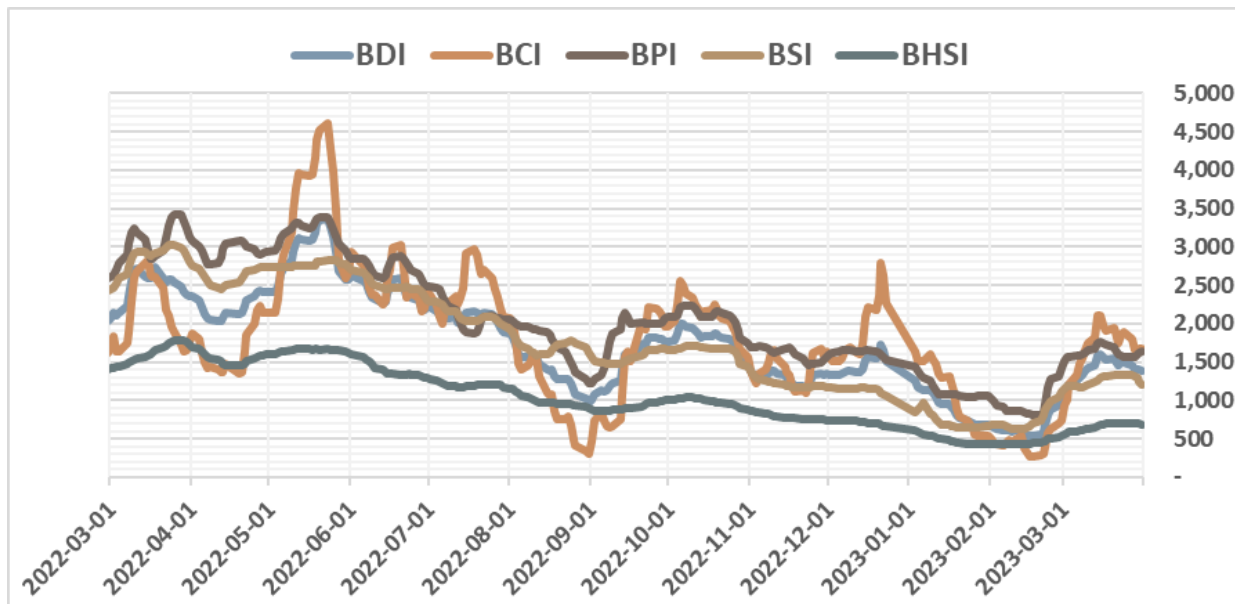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MSC VERONIQUE	84,090	23,450	1988	DENMARK	B&W	550	INDIAN, HKC end user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3-03-31	2023-03-24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1,389	1,489	▼100.00	3,369	530
BCI	1,665	1,882	▼217.00	4,602	271
BPI	1,635	1,572	▲63.00	3,416	809
BSI	1,198	1,332	▼134.00	3,033	625
BHSI	687	703	▼16.00	1,787	431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578.00	▲13.50	570.50	▲40.50	575.50	▲4.00
MGO	744.50	▲1.50	749.50	▼10.00	777.00	▼51.50
LSMGO	744.50	▲1.50	749.50	▼10.00	-	-
IFO380	446.00	▲30.00	429.50	▲49.50	416.50	▲29.50

❖기준일 : 03 월 31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3-03-31	2023-03-24	CHANGE
미국 USD	1303.80	1287.20	▲16.60
영국 GBP	1614.95	1581.13	▲33.82
유로 EUR	1421.53	1394.42	▲27.11
중국 CNY	189.13	187.39	▲1.74
일본 JPY (100)	981.44	984.21	▼2.77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ISSUE & TREND

[시사 상식]뱅크데믹 (Bankdemic)

'뱅크데믹'이란 은행을 뜻하는 '뱅크'와 전염병을 뜻하는 '팬데믹'의 합성어로, 은행권 위기에 대한 공포가 전염병처럼 빠르게 확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스위스 대형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가 UBS 에 인수되고, 도이체방크마저 신용부도스와프(CDS)가 급등하는 등 은행권 부도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나온 신조어다.

전 세계 은행권이 갑작스럽게 금융 불안의 진원지로 부각된 것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등 중앙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온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SVB 의 경우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미쳐 채권 포지션을 조정하지 못하며 대규모 미실현 손실을 떠안게 됐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 요청에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무디스는 "상당한 미실현 증권 손실이 있고, 소매 고객이 없고,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국 예금자들이 있는 은행들은 차입, 유동성, 실적, 자본 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예금자 경쟁이나 궁극적으로는 (예금자) 이탈에서 더 민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연준과 유럽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은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발언을 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은행권 위기에 대한 공포는 점차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VII. CONTACT DETAILS

STL GLOBAL CO., LTD.			
Marino Hwang(황 재 웅) President T. 070-7771-6400			
Fleet & Chartering Operation biz@stlkorea.com	Sancho Kim(김 현 진) Managing Director T. 070-7771-6404	H.S. Lee(이 현 성) Director T. 070-7771-6412	
	Mike Hong(홍 창 목) Director T. 070-7771-6417	Henry S.H. Oh(오 수 현)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2	
	Anna Lee(이 혜 란) Manager T. 070-7771-6403	Joovi Park(박 주 비)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19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Jennifer Park(박 영 단) Manager T. 070-7771-6407	Hayden Son(손 호 영)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01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Jena Ahn(안 지 영)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5	Joanne Jin(진 정 식) Manager T. 070-7771-6406	
STL SHIPPING CO., LTD.			
Sale and Purchase Broking snp@stlkorea.com	Neal S.I. Kwon(권 순 일) President T. 070-7771-6410		
	Jack Kim(김 종 수) Director T. 070-7771-6411	Nova Cha(차 혜 정) Team member T. 070-7771-6409	
T. 02-776-0840(Rep.) E. seoul@stlkorea.com W. www.stlkorea.com (04146) 101-13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TOUR		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 영 하	T. 1661-8388 T. 070-4800-0151 W. www.stlgtour.com E.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 진 행 대리 이 정 택	T. 061-247-0331 T. 010-2777-4027 W. www.stlyacht.com E. academy@stlyacht.com